

기초 교리 문답

<1 단계>

문 1. 동학.천도교를 처음 세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답 : 수운 최제우 스승님입니다. 수운 대신사(大神師)라고 부릅니다.

문 2. 동학.천도교는 서력기원으로 언제 창도되었습니까?

답 : 1860년 4월 5일(경신년 사월 오일)입니다.

문 3. 천도교의 연호(年號)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 포덕(布德)입니다. 천도교(동학)가 창명된 해(1860년)가 포덕 원년(1년)입니다.

문 4. 천도교의 교조는 누구누구입니까?

답 : 1 세 교조는 수운 대신사(최제우), 2 세 교조는 해월신사(최시형), 3 세 교조는 의암성사(손병희)입니다.

문 5. 천도교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답 : 한울님입니다.

문 6. 천도교의 종지(宗旨)는 무엇입니까?

답 : 사람이 이에 한울이라는 뜻의 ‘인내천(人乃天)’입니다. 사람이 신앙과 수도를 착실하게 함으로써 한울님과 나의 근본이 하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한울사람이 되면 성인군자가 된다는 뜻의 ‘인내천(人乃天)’입니다.

문 7. 천도교를 신앙하는 개인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 도성덕립하여 한울사람(지상신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 8. 천도교의 종교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 보국안민, 포덕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 건설입니다.

문 9. 천도교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답 :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입니다. 한울과 사람과 물건까지 공경하여야 천지기화의 덕에 합일하여 ‘사인여천(事人如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문 10. 천도교의 실천 도덕은 무엇입니까?

답 : 정성, 공경, 믿음(誠敬信)입니다.

문 11. 천도교의 경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 : 수운대신사의 동경대전, 용담유사와 해월신사의 법설과 의암성사의 법설이 천도교경전 한권에 실려 있습니다.

문 12. 천도교 신앙의 기본 의무인 오관(五款)은 무엇 무엇입니까?

답 : 주문(呪文), 청수(淸水), 시일(侍日), 성미(誠米), 기도(祈禱)입니다.

문 13. 주문(呪文) 스물한 자는 무엇입니까?

답 :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법문이며 ‘지기금지원위대강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입니다.

문 14. 청수(淸水)는 언제 봉전합니까?

답 :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에서 봉전합니다. 가정에서 매일 오전 5 시와 저녁 9 시에 온 가족이 함께 기도식을 봉행할 때와 기타 의례, 제례, 각종 기도 등에도 청수를 봉전합니다. 한울님께 예를 갖추는 의식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로 모든 제물을 대신하여 오직 정성으로 봉전합니다.

문 15. 시일(侍日)은 언제이며 무엇 하는 날입니까?

답 : 일요일을 시일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울님과 스승님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고 집단 교화를 통하여 감화를 받는 날이며, 오전 11 시에 교당에 모여 시일식을 봉행합니다.

문 16. 성미(誠米)는 무엇이며 언제 냅니까?

답 : 매끼 밥할 쌀에서 한 식구마다 한 수저씩 기도하고 떠서 모아두었다가 매월 현물이나 금액으로 환산하여 교회에 헌납하여 한울사업에 쓰이게 하는 물질적 정성입니다. 성미에는 매달 내는 월성미와 1 년에 상하반기 두 번 내는 연성미(기도미)가 있습니다. 월성미는 매 달 마지막 시일에 냅니다.

문 19. 기도(祈禱)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 매일 새벽 5 시와 저녁 9 시에 봉행하는 매일기도와 시일저녁에 봉행하는 시일기도, 그리고 특별히 목적과 날짜를 정해놓고 정성 드리는 특별기도가 있으며,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문 20. 심고(心告)란 무엇입니까?

답 : 내가 모신 한울님께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정성껏 마음으로 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한울님 은혜에 감사 ② 자신의 지난 허물 반성
- ③ 바르게 살 것을 각오
- ④ 계획과 할 일, 한 일을 구체적으로 아뢰어 감응을 바람
- ⑤ 기타 소원을 청함

문 21. 식고(食告)란 무엇입니까?

답 : 식고(食告)는 식사할 때의 심고를 말하며, 식사를 시작할 때와 마친 다음에 합니다.

<2 단계>

문 1. 동학(東學)이란 무슨 뜻입니까?

답 : 동방(東方), 곧 우리나라의 학(學)이라는 뜻으로, 대신사께서 우리나라에서 탄생하여 천도(天道)를 받으셨으니 한울님의 존재와 그 조화를 바르게 밝혀 그에 따라 사람 된 도리를 닦아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 놓은 학문입니다.

문 2. 천도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답 : 한울님의 존재와 어김없는 조화와 은덕(萬物化生 天生萬民 등)을 가르쳐서 누구나 한울님을 공경하고 한울님의 뜻에 따라 한울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문 3. 천도란 무엇입니까?

답 : 한울님 조화의 이치이니 우주의 만리만사(萬理萬事)가 이루어지고 되어 나가는 근원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대신사께서 한울님으로부터 받아낸 무극대도가 바로 천도입니다.

문 4. 천도와 동학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 : 천도는 우주의 만리만사를 섭리하는 조화의 법칙이며, 동학은 천도의 정연한 이치와 법칙을 밝힌 학문으로 사람이 천도와 짝해서 인도를 바르게 체행해 나아가는 길을 밝혀 놓은 학문입니다.

문 5. 천덕(天德)이란 무엇입니까?

답 : 우주의 만유(萬有)가 생겨나고 자라고 변화하는 것은 한울님의 조화 즉 천도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곧 이 우주에 나타나는 모든 한울님 조화의 자취가 바로 천덕입니다.

문 6. 주유팔로(周遊八路)란 무엇입니까?

답 : 대신사께서 젊은 시절 제세안민의 길을 찾으시기 위하여 세상 곳곳의 인심풍속을 살피며 10 여 년 동안 두루 다닌 것을 말합니다.

문 7. 을묘천서(乙卯天書)란 무엇입니까?

답 : 대신사께서 을묘년에 울산 여시바윗골 자택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었을 때에 어느 이인(異人)으로부터 천서(天書)를 받는 체험을 하신 것을 말하며 이 이후로 그 책의 ‘기도하라’는 가르침대로 한울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문 8. 천사문답(天師問答)이란 무엇입니까?

답 : 제세안민의 도를 구하기 위해 지극한 정성과 공경을 다해 기도하던 대신사께서 경신년(1860년) 4월 5일 강령이 되어 마음과 몸이 떨리면서 한울님 말씀을 듣게 되어 한울님과 문답하신 것을 말합니다.

문 9. 한울님이 대신사님을 세상에 내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 세상 모든 만물이 한울님의 조화로 화생하였고 사람 또한 한울님의 덕으로 태어나 살아가는데(萬物化生, 天生萬民) 이리함을 모르기 때문에 한울님의 존재와 조화, 은혜를 알아 한울님을 위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문 10. 대신사께서 득도하신 후 세상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 : 시운(時運)에 의하여 다시 개혁의 새 세상이 오는데, 이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후천운수를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 모두 한울님이 곧 부모인 이치와 한울님 모심을 알고 한울님을 부모님 섬기는 것과 같이 공경하여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문 11. 대신사께서 좋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 새로이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 세상 사람들 모두 한울님을 지극히 위하여 본래 타고난 천심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지켜(수심정기) 한울사람으로 거듭남으로써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문 12. 천도교의 4대 기념일은 무엇이며 어떤 날인가요?

답 : 천일기념일(4월 5일) 대신사께서 한울님으로부터 도를 받은 날,
지일기념일(8월 14일) 해월신사께서 대신사로부터 도통전수 받은 날,
인일기념일(12월 24일) 의암성사께서 해월신사로부터 도통전수 받은 날,
도일기념일(1월 18일) 춘암상사께서 의암성사로부터 대도주로 승임 받은 날입니다.

문 13.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친하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 포덕 46 년(1905 년) 12 월 1 일 의암성사께서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하여 크게 천하에 고(大告天下)해서 현대적 종교로 현도(顯道)시켰으므로 현도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문 14. 대신사께서는 한울님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답 : 형체가 없으므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도 없으나 스스로 만능의 이치와 기운을 갖추고 우주, 만물, 사람, 내 몸의 모든 것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명(命)을 내리지 않은 바가 없는 혼원(混元)한, 한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문 15. 한울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답 : 한울님은 어디 먼 초월적인 공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무형의 이치기운으로서 이 우주에 편만(遍滿)되어 계시며, 동시에 내 몸에 모셔져 계십니다.

문 16. 대신사께서는 한울님을 어떻게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답 : 한울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사람을 낳고 내 몸에 모셔져서 심리작용과 생리작용을 하며 안팎에서 도와주시는 참 부모님이므로 부모님 모시듯이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17. 천도교를 왜 신앙합니까?

답 : 각자위심(各自爲心)의 마음을 버리고 동귀일체(同歸一體)를 이루며, 세상 사람들이 한울님 마음을 회복하여 지상신선으로의 삶을 살므로 지상천국을 이룩하는 데에 있습니다.

문 18. 각자위심(各自爲心)이란 무엇입니까?

답 : 대의(큰 이익, 한울님 뜻)를 저버리고 각기 자신이 지닌 사사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며, 이기주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문 19. 동귀일체(同歸一體)란 무엇입니까?

답 :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한울님 마음을 회복하므로, 한울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한울님 뜻과 일체를 이룸으로써 모두가 각자 자기의 책임을 충실히 하며 주위와 조화롭게 공변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문 20. 천도교에서 행하는 수행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 : 개인적으로는 도성덕립(道成德立), 이신환성(以身換性)하여 한울사람(지상신선)이 되는 것이요,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한울님의 삶을 실천하는 지상천국을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

문 21. 천도교의 주문은 무엇입니까?

답 : 한울님을 지극히 위하는 법문으로, 천도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 하는 한울님의 기화를 기원하는 강령주문과,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하는 한울님을 잊지 않고 위하는 본주문(本呪文)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3 단계>

문 1. 대신사께서 포덕 원년(경신년, 1860) 종교체험을 통하여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답 : 영부(靈符)와 주문(呪文)입니다.

문 2. 영부(靈符)란 무엇입니까?

답 : 영부란 한울님의 약동하는 기운을 형상화 한 것이며, 나아가 한울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 부합(符合)함의 표현입니다. 강령상태에서 영부를 붓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문 3. 대신사께서 경신년에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하시면서 한울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吾心即汝心)” 라는 말씀을 들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답 : 대신사께서 지극한 수련을 통해 본래의 마음인 한울님의 마음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한울님 마음과 대신사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 4. 대신사께서 처음 포덕을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답 : 포덕 2년(1861년) 신유년 6월입니다.

문 5. 포덕(布德)이란 무엇입니까?

답 : 세상(타인)에 덕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한울님의 존재와 덕을 알게 하여 한울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효유하는 것입니다. 천도교인은 한울님의 뜻을 따라서 한울님의 덕을 바르게 세상에 퍼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대신사께서 한울님 덕을 세상에 편 1860년을 포덕 원년(元年)이라고 말하고, 기성 종교의 전교, 전도를 천도교에서는 ‘포덕’이라고 말합니다.

문 6. 「포덕문」 첫머리에 “사시(四時)가 성했다 쇠하고, 또 계절에 따라 비.바람.서리.눈 내리는 것이 조금도 그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답: 우주가 한울님의 조화(天道)로 생겼고 천법과 천리는 어김이 없기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은 한울님이 덕을 베푸시는 현상입니다.

문 7. 한울님의 자취는 어디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답 : 일월성신, 삼라만상이 화해나서 자라고 밤낮의 변화, 사시성쇠, 풍로상설 등이 한울님 조화의 자취이며 행주좌와(行走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기거좌립(起居坐立) 등도 한울님 조화의 자취입니다.

문 9. 사람만 오로지 한울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이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侍天主) 있습니다.

문 10. 만물 모두가 한울님을 모셨다면, 사람과 다른 만물과는 무엇이릅니까?

답 : 사람은 오행의 빼어난 기운(秀氣)으로 천법과 천리, 선과악, 만법, 만상, 화복의 인과를 헤아릴 수 있어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最靈者)입니다. 따라서 한울님 모심을 깨닫고 한울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문 11. 「포덕문」에서 옛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왜 올바르게 몰랐다고 했습니까?

답 : 비와 이슬도 한울님이 만유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베푸는 한울님의 은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愚夫愚民)은 한울님 존재와 조화, 은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절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서 만물이 태어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 12. 「포덕문」중에 ‘오제이후의 세상(自五帝之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답 : 한울님이 성인(오제, 五帝)을 내어 천도를 차차 밝혀내게 되니 사람들은 천명(天命)을 공경하게 되고 또 천리(天理)를 따르게 되어 천도를 밝히고 천덕을 닦으므로 성인군자가 되어 인류의 문명이 꽃피는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문 13. 「포덕문」중 ‘우리가 살고 있는 근년(又此挽近以來)’은 어떤 때입니까?

답 : 쇠운(衰運)이 지극한 시대로 사람들은 천리를 따르지 않고(不順天理) 천명을 돌아보지 않으며(不顧天命) 각자위심(各自爲心)으로 인하여 살아갈 바의 방향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문 14. 대신사는 쇠운의 시기에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답 :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는 법이니, 성운을 맞을 수 있도록 정심수도(正心修道)로 동귀일체(同歸一體)하라고 하셨습니다.

문 15. 지상신선(地上神仙)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답 : 오랜 수련을 통해 한울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守心正氣) 하여 한울님 덕과 도를 세상에 실천하는(道成德立) 사람이며, 그러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해진(與天地合其德) 사람입니다.

문 16. 우리는 왜 지상신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까?

답 :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상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울 사람, 곧 지상신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 17. 천지기화(天地氣化)의 덕에 합일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윤리는 무엇입니까?

답 :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삼경(三敬)입니다.

문 18. 경천(敬天)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답 : 경천은 결코 허공을 향하여 상제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공경하는 것으로, 사람은 한울님을 공경함으로써 나의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을 통하여 세상사람 모두 나의 동포이며 만물 모두 나의 동포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세상을 위해 의무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진리의 중심을 움켜잡는 일인 것입니다.

문 19. 경인(敬人)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답 : 경천만 있고 경인이 없다면 이는 농사의 이치는 알되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경천은 사람을 공경하는 행위에 의지하여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사람을 섬기되 한울님과 같이 하는 것이 바른 도(道)의 실행입니다.

문 20. 경물(敬物)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답 : 모든 형상을 갖춘 물건 속에도 한울님의 영기가 통해 있기 때문에 한울로서 즉 천지부모님 육신으로 어머니 살같이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천지기화(天地氣化)의 덕에 합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 21. 부화부순(夫和婦順)은 무엇입니까?

답 : 부부가 서로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외가 화순하면 천지가 안락하고 부모도 기뻐하게 된다고 하셨으며 부부는 천지라 천지가 화하지 못하면 한울님이 싫어하시니 집안이 화순(和順)하도록 더욱 힘쓰라고 하셨습니다.